

군산시, 정부 추경예산 1063억 확보

11건 483.8억 주요 현안사업 대거 증액 편성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에는 80억원 반영
전북도 · 시의회와의 전폭적인 지원 '결실'

군산시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지역경제 위기 속에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2018년 정부 추경예산 가운데 시 관련 예산은 총 24건 1,063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24건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1조 9,650억 원으로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자택 군산 공장 폐쇄발표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 반영 주요 국가예산사업은 군산 홀로2팩토리 체합조성 35억, 군산 예술콘서트 스테이션 구축 20억,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16억, 군산해역 해상 서식장 조성 8억,

말도항 선착장 보강공사 20억, 관리도 접안시설 개선사업 13억원 등이다.

특히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단계에서 11건 483.8억의 군산시 주요 현안사업들이 대거 증액 편성돼 그동안 위기극복을 위한 군산시의 대정부 및 정치권 건의 활동이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단계에서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 중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은 272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국내외 기업에 저렴한 임대용지를 제공할 수 있어 새만금 산단 투자유치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예산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에는 8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부지 매입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에 50억,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 81억 원을 확보해 한국자택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추경예산 1,063억 원을 확보하기까지는 시 공무원



지난 21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2018년 정부 추경예산 가운데 시 관련 예산은 총 24건 1,063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에 50억,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 81억 원을 확보해 한국자택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추경예산 1,063억 원을 확보하기까지는 시 공무원

모두가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상대로 지역현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끊임없이 노력함과 동시에 김관영 국회의원과의 추진력, 전북도와 시의회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모두 합쳐진 결과"라며 "본 추경예산이 군산의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사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배승철 도의원 예비후보, 민주평화당 입당 출마 선언

배승철 익산 1선거구 전북도의원 예비후보는 "익산의 미래를 위해 바른미래당을 떠나 민주평화당에 입당하여 아랫대 통합의 길에 나서겠다"고 지난 21일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제 배 예비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의 고민은 길고도 길



있고 배승철의 정치인생 20년을 돌아보며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했던 제 가슴 속의 질문 -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였습니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배 예비후보는 "제가 꿈꾸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평화당의 노선과 정책이 익산시의 뜻과 부합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익산시민들의 큰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민주평화당에 입당한다"고 발표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경찰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합동단속 실시

군산시는 상습·고질적인 자동차 체납 근절을 위해 5월 말까지 추진하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오는 24일 군산경찰서와 함께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운영을 위해 시 징수과에서 3개반, 차량사업소 1개반, 군산경찰서 2개반으로 총 20반을 6개반으로 구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정 및 이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은 체납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목표로 전국에서 일제히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어 단속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체납세의 31%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방재정의 세원인 만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정례화하고 체납자의 건전납세 문화를 조성하면서 재산 및 세금 압류 등도 강도 높게 추진해 세원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5일 제12차 콜로키움 열어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원불교사상연구원 대학종교연구소는 오는 25일 동양사학계의 원로 석학인 미야자마 히로시(사진) 교수를 초청해 '유교적 근대론과 한국사 연구'를 주제로 제12차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교내 숭산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콜로키움은 대학종교연구소 연구과제인 '근대론형 수용과정에 나타난 한국종교의 공공성 재구축' 연구의 일



환으로 서구와 다른 동아시아적 근대성과 한국적 공공성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역사학의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인 미야자마 히로시 교수는 동경대학에서 동아시아 근현대사와 조선 경제사를 연구했으며, 동경도립대학, 동경대학, 성균관대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동아시아 사회가 서구와는 다른 근대화의 길을 걸었다는 '소농사회론'과 '유교적 근대론'을 제창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양반', '나의 한국사 공부',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등이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김민서 익산시의원 예비후보 개소식

김민서 익산시의원 예비후보(김 후보)는 "혁신과 소통 그 길이 나의 길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소식을 성황리에 열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익산시민을 비롯한 정현을 익산시장 예비후보,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익산시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치러졌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병행



히 파악해 공약 준비를 이미 했으며 평탄한 아스팔트보다 가시밭길이라도 시민과 지역을 위한 길이라면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지역구를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면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김민서 예비후보는 "▲꿈과 희망이 있는 교육환경 육성 ▲교통환경개선 ▲안전위가 대책마련 ▲백세시대에 대비한 건강증진대책 수립 ▲실버인재선더 구축 ▲특성 정보화마을 육성 지원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 등의 7개 공약한다고 약속했다.

/익산=정양원기자

6.13 지방선거 판세분석 - 군산시 광역의원 제1선거구

민주 VS 바미 경쟁 치열

지방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을 지방의회라 부른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의원과 더불어 전라북도 광역의원 선거 열기가 뜨겁다.

이번 선거의 경우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며 비랍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력을 믿는 바른미래당, 이밖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정한 현역의원들이 경쟁을 펼쳐 누가 도의회에 입성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월 1일 현재 옥구읍과 옥산·회현·육도·육서면, 미성·소룡·해신동 등을 포함한 광역의원 제1선거구는 박재만 현역 위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후보가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내용을 겪으면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또 다시 경선을 치렀다.

이 결과 당초 1차 당내 경선에서 강태천(61), 김진(48) 예비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로 낙점됐던 나기학(62) 예비후보가 또 다시 경선에서 승리했다.

지난달 20일 선거사무소 문을 열고 지역 세물어에 나서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용권(53) 후보는 이번 선거야말로 절호의 기회라 리는 네거티브 선거 공방전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성년의 날 전통의례 체험

익산문화원서 전통 관·계례 의식 재현

익산시 향교유림연합회는 제46회 성년의 날을 맞아 전통성년의식인 관례계례 재현 행사를 지난 21일 익산시 문화원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익산시 향교유림연합회 주관으로 익산 4개 향교 및 성년을 맞은 학생들,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을 맞은 원광대, 전북대 남녀 학생들이 전통 관례복장을 갖추고 전통의례를 체험하며 어른으로서의 첫 출발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통예법에 따라 어른의 평상복, 예복 등을 입으며 품자집을 당부하는 가례, 술 마시는 예법을 일러주고 성년됨을 축하하는 초례, 이를 대신 부를 수 있는 자(子)를 지어주는 자관(계자) 등 순으로 거행됐다.

아울러 청소년의 달과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단체 및 시설의 추천을 받아 익산시 청소년상(4명), 모범 청소년(1명), 올해 가장 성인이 된 모범 성년(1명), 건전한 지도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지도자(2명) 1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성년을 맞은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전통 성년례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성년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인으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익산 Dream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